



기획시리즈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 미생물과장

7, 8월의 해충 (Ⅱ X VI)

—버즘나무가지마름병— (*Apiognomonia veneta*)

버즘나무 가지마름병은 유럽 및 북미지역에 발생하여 버즘나무에 심한 피해를 주고있는 병해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5월 남부지역인 부산과 삼천포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주요 병해가 되었다.

봄 새잎이 나오기 전에 눈이 고사하여 잎이 나오지 못하므로 피해가 심한 가지는 가지 전체가 고사된 것과 같이 보인다. 수관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나무 전체에 잎이 없으므로 동해를 받아 나무 전체가 고사된 것과 같이 보인다.

○분포 : 한국, 미국, 유럽

○기주식물 :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병징 : 봄 새 가지가 나올 겨울눈 기부에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그 부위가 점차 확대되어 눈이 고사되므로 잎이 전혀 나오지 못하거나 새 가지가 나와 잎이 어느정도 자라다가 갈색으로 고사하여 여름이 되도록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피해가 눈에 잘 보인다. 주로 녹지(綠枝)에 병이 많이 발



▲잎이 나오다 고사된 피해지

생하며 2년생 이상의 가지에도 피해가 발생할 때도 있다. 이 병이 발생하면 주지가 고사하고 측지가 자라 가지가 구부러진다.

완전히 자란 잎에 병이 발생하면 엽맥을 따라 엽육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괴사한다.

○병원균 : 가지에서 월동한 균은 나무 휴면기에 가지 및 눈에 감염된다. 병든 가지는 생장을 계속하나 엽흔 위의 겨울눈은 바로 고사한다. 새로 생긴 환부에서 분생포자가 발생, 빗물에 섞여 튀어가 새로 돌아나는 잎에 전염된다. 병든 낙엽에서 자낭반으로 월동한 후 다음해 봄 자낭포자를 공기



▲2년생 가지에 발생한 환부



▲피해 받은 잎

중으로 비산시킨다.

○방제법 : 병든 가지나 낙엽에서 병균이 월동하므로 병균의 활동 시작 전인 동기에 낙엽 및 병든 가지를 제거 소각하거나 비닐을 덮어 병원균의 포자가 비산하지 못하도록 한다.

약제방제는 탄저병 방제약인 만코지수화제, 타로닐수화제 및 캡타폴수화제 등을 새 잎이 나올 때부터 2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